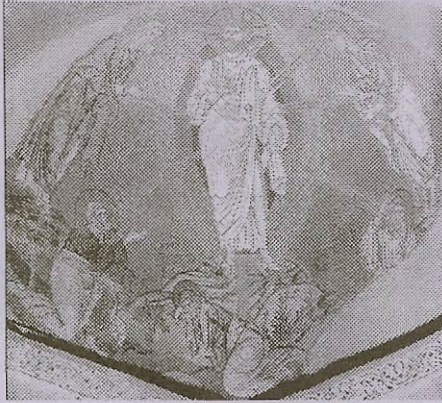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2주일
제30권 14호(다해) 2010 · 2 · 28

[묵상]



거룩한 변모<작자미상, 1100년경, 모자이크, 그리스>

긴 여정에는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하듯
긴 신앙여정 중인 우리에게
하느님의 위로는 희망과 용기를 준다.
예수님은 세 제자만을 위하여
특별한 위로를 마련하신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하게 변모하신다.
“아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소리까지 구름 속에서 들린다.
뭔가 있다, 분명히 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
그냥 이대로 여기에서 영원히
우리끼리 지냈으면 좋겠는데 말이다.
무심결에 내뱉은 베드로의 말은
늘 예수님의 현존을 일깨워주고
순간순간 현실적인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 마음을 보는 듯하다.
행여 예수님 따르기를 중단할까봐
예수님께서 마련하셨던 특별한 위로가
이젠 필요치 않다고,
이젠 당신을 믿으며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할 용기가 아직도 없는 것일까!

-樞-

martinlec0501@hanmail.net

미사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9:00 오후 7:30
금요일	저녁 미사(사순시기만)	오후 7: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배론 청년회 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프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만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 꾸리아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첫째/셋째주 - 대학부(PACEM)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2:30 오후 1:00 오후 2:00

-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문 함티스타 (310)326-4350 Ext.102
총신부제: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엄은섭 도로테오
특전 미사	(생)박승헌 유스티노
주 일	(연)소수연 안나, 이현호 요한, 김종환 야고보, 이은완 야고보, 김복임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이금순 마리아, 차정진 마리아, 이영자 마리아
낮 미사	(생)이덕철 루까, 변해경 올리아나, 이희영 안나 가정, 홍광선 & 이호미 엘리사벳, 최석원 안드레아, 이명찬 토마스 아퀴나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창세기(Genesis) 15,5-12,17-18

화답송 ○주님께서 나의 빛, 내 구원이시로다.
내 구원이시로다. <전례서가 65 다해>
○주님께서 나의 빛, 내 구원이시거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께서 내 생명의
바위시거늘,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주님, 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와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이내 마음 당신께
아뢰옵고, 이내 얼굴 당신을 찾고 있삽나이다.○
○주님, 당신 얼굴을 찾고 있사오니 그 얼굴
저에게서 감추지 마옵소서. 진노하사 당신 종을
내치지 마옵소서. 내 구원의 주님이시여,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생명의 땅에서 주님의 복을, 저는 누리리라
믿삽나이다. 주님을 기다리며 아귀차저라.
내 마음 굳게 굳게 주님을 기다려라.○

제 2독서 필리피서(Philippians) 3,17-4,1
<또는 3,20-4,1>

복음 환호송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빛나는 구름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렸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복음 루카(Luke) 9,28-36

영성체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51	156
봉헌	269	257
성체	소원	284,298
파견	157	153

1.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 인간 생명에 대한 현대의 위협 -

▶희망의 표징과 현신에 대한 초대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에서 해방되었
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것은 은이나 금 따위의 없어질
물건으로 값을 치르고 된 일이 아니라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
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얻은 것입니다."(1베드
1,18-19) 신앙인은 바로 이 귀중한 그리스도의 피, 자신을 내
어주시는 사랑의 표징(요한 13,1 참조)을 묵상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지닌 거의 신성에 가까운 품위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
게 되며, 더욱 새로워지고, 감사하는 경이로운 마음으로 이렇
게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으니"(부
활 성야의 부활 찬송),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사람들이 '멸망
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주셨으니'(요한 3,16 참조)
창조주의 눈에 인간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더구나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위대함과 그에 따른 소명이
자신을 진실로 내어주는 것임을 인간에게 보여준다. 그리스도
의 피가 생명의 선물로서 뿌려졌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피는 더 이상 죽음의 상징이나, 형제들과의 영원한 분리의 표
징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생명이 지닌 풍요로운 일치의 도
구인 것이다. 성체성사에서 이 피를 마시고 예수님 안에 머무
르는 사람은 누구나(요한 6,56 참조) 그분의 사랑과 생명의 선
물이 지닌 활력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며, 모든 사람들이 지닌,
사랑에 대한 원초적인 소명을 다시 일깨우게 된다.(창세 1,27;
2,18-24 참조)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생명을 증진시키
기 위해 자신을 바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희망의 가장 힘있
는 원천은 바로 이 피이며, 실제로 이 피는 하느님의 계획 안
에서 생명의 승리를 거두리라는 절대적인 확신의 토대이다.
천상 예루살렘의 하느님 옥좌로부터 들려오는 큰 음성이 "이
제는 죽음이…… 없을 것이다."(묵시21,4) 하고 선포한다. 그
리고 성 바오로는 죄에 대한 지금의 승리는 죽음에 대한 결정
적인 승리의 표징이며, 그것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보장한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네 승리는 어디 갔느냐?
죽음아, 네 독침은 어디 갔느냐?'라는 성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1고린 15,54-55)

실제로 우리 사회와 문화들이 강력한 "죽음의 문화"의 표지
들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이러한 승리를 가리키는
표징들이 없지는 않다. 따라서, 만일 현재 인류가 처한 상황 속
에서 움직이고 있는 긍정적인 표징들을 함께 제시하지 않고
생명 위협에 대한 비난만 제시한다면, 그것은 헛된 낙담으로
이끌 수 있는 일면적인 모습만을 제시하는 것이다. 불행하게
도 이러한 긍정적인 표징들을 발견하는 것은 흔히 어렵다.

◆(계속)

기도를 열심히

오늘 제1독서의 말씀으로 함께 들은 창세기 15장 6절은 사도 바오로께서도 무척 좋아하셨던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하느님께서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로마 4,3) 사도 바오로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모든 신앙인의 시조이자 모범인 것은, 그가 선행을 많이 해서 공로를 아주 많이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복과 은총을 내려줘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자비의 하느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복음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우리 마음 안에 커다란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장래에 많은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며, 누구든지 당신의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루카 9,22-23 참조)

이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뭔가 답답하고 착잡한, 뭔가 무겁고 혼란스러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인적이 드문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믿음을

채워주었습니다. 덕분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 영광스러운 천상의 모습으로 변모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도 하였습니다.

부활대축일을 준비하는 참회와 은총의 시기인 사순절은 우리가 평소보다 더욱 기도해 힘을 쏟아야 할 기간입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특별히 부족한 우리 믿음을 채워달라는 청원을 주님께 드려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청을 꼭 들어주셔서 우리 믿음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이런 의미로 이번 사순절 동안 함께 바쳤으면 좋겠다 싶은 기도를 한 수 소개해 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위로의 영을 전사하소서.
마음에 위안이 없이 메달라
영적인 어둠 속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충실하게 섬겨야 하고,
또 그렇게 충실하게 섬길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청합니다.
저희에게 위로와 힘, 기쁨과 확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성령,
고귀한 봉사와 찬양의 영을,
또 침착함과 평화의 영을 주십시오.
아멘. - 칼 라너 신부 -

◆신회준 루도비코 신부
<사제평생교육원>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래 테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김교복 레오	권순길 채철리아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김금자 테레사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1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정미영 미카엘라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이태호 바오로	김교복 레오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김금자 테레사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하비/카슨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十 사순시기 十

-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7:30 저녁미사 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아침미사가 오후 7시30분으로 변경됩니다. 미사후 십자가의 길이 구역순으로 진행됩니다.
 - 사순 제2주일 금요일(3월5일) : 토런스 남구역
 - 사순 제3주일 금요일(3월12일) : 토런스 북구역
 - 사순 제4주일 금요일(3월19일) : 하버/카슨 구역
 - 사순 제5주일 금요일(3월26일) : P.V. 구역
- ◆ 사순 특강이 매 주일미사 중에 있습니다.
 - 사순 2주(오늘 주일 27/28일) : 이장환 본당 신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공동체의 모습"
 - 사순 3주(3월6/7일) : 이순성 신부(글라렛 선교수도회, 전 광주가톨릭대학교수), "사순시기에 맞는 신앙생활"
 - 사순 4주(3월13/14일) : 최영신 종신부제, "종신부제와 봉사의 삶"
 - 사순 5주(3월20/21일) : 양희문 신부
- ◆ 사순절 희생애공봉투가 준비됐습니다.
 -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사순절 희생봉투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4월1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 사순 판공성사 : 3월23일(화)
 - 참회예절 : 오후 7시30분
 - 고해성사 : 오후 8시부터(주일학교도 같은 일정)
 - 공동보속 : ①사도행전 통독 ②선행1회 ③주모경 1회
이중 두가지 이상 선택(특히 선행은 성당의 잡초뽑기를 권유합니다.)

3월

- ◆ 병자 영성체 : 4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 성 시간 : 4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 진행 : 토런스 서구역
- ◆ 성모 신심 미사 : 6일(토) 오전 8시30분

◎ 축하합니다. ◎

- ◆ 혼배성사 : 2010년 3월5일(금) 오후 7시, 백삼위 본당
♡ 김창화 스테파노 & 이경민 소피아 ♡

- 주례 : 이장환 마르티노 신부님
- 부모님 성함 : 故김종열 아가비도 & 김정순 클라라
이정곤 & 박복금
- 결혼식 : 3월6일(토) 2pm, The Wayfarers Chaple, R.P.V.

◆ 유아세례 축하합니다.

- 2월27일(토) 오후 6시 박승현 유스티노 어린이(대부 : 강태규 베드로)가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스티노가 하느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제1회 부활맞이 천선탁구대회 오늘(28일)부터 준준결승 시작

- 출전팀 : 5구역/5단체팀(토런스 서-남-북, 하버카슨, P.V. 회장단, 양업-성모, 대진-자모, 원서-청년, 대학-주일학교 팀)
- 준결승 : 3월28일 주일(3구역팀, 3단체팀 출전)
- 결승 : 4월4일(부활절)

◆ 아이티 지진피해자 돕기 성모회포 김치판매

- 일시 : 3월20/21일 특전미사부터 주일미사까지
- 집에 있는 빈 김치병 모으기 : 300명이 필요합니다.
- 김치 담그는 날(3월19/20일) 봉사자(자매님과 특히 형제님들)의 도움이 절실하오니 적극 협조해주시요.
- 문의 : 성모회장 오혜숙 루시아 ☎(310)490-3358

◆ 남가주 한인M.E. 제65차 첫주말 수강부부 모집

- 일정 : 4월30일(금)~5월1일(주일)
- 장소 : 마리아 & 요셉 피정센터(P.V.)
- 신청 : 김성현 유스티노&희연 루치아 대표부부 ☎347-1665

◆ 빈첸시오회 활동/명예 회원 초대합니다.

- 신청 : 박홍룡 요셉 ☎(310)283-5879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2월28일(주일) : 토런스 남1반(국밥 \$3)
- 3월7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4)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구본엽 김원호 박광자 엄세종 이우성 정순석 최현찬	금영도 김재영 박근식 오수인 이일형 정훈모 한혁수	김관기 김정애 박진심 오진 이재용 조준제 한혜숙	김낙기 김정웅 송준규 육근주 이태옥 조화숙 홍석인	김성일 김찬구 신순철 이귀란 이현주 최원석 황인중	김성현 김형순 안연숙 이석진 이희영 최재은 합계 : \$3,600
미사헌금 : \$2,853						

성전헌금	구본엽 김찬구 오수인 이태옥 조화숙 홍석인	금영도 김형순 육근주 이현주 최원석 황인중	김관기 박광자 이귀란 이희영 최재은 탁구선수	김낙기 신순철 이일길 정순석 최현찬	김성일 안연숙 이일형 정훈모 한혁수	김원호 엄세종 이재용 조준제 한혜숙 합계 : \$2,470

공지사항

◆ 주일학교 중,고등부(7~12학년) 사순피정

- 주제 : "We Belong to God's Family."
- 장소 : 빅배어 예수성심 피정센터
- 일시 : 3월5일(금, 오후 4시 성당출발)~7일(주일 오후5시 성당 도착예정)
- 준비물 : 성경, 주일헌금, 슬리펍백, 세면도구, 초록색 주일 학교 티셔츠, 자기 베이비 사진, 가족사진 1장, 묵주

◆ 주일학교 견진성사

- 리허설 : 5월14일(금) 오후 7시30분~9시
- Reflection : 5월20일(목) 오후 7시
- 견진성사 : 5월21일(금) 오후 7시
- 대상 : 주일학교 견진성사 대상자(10학년 이상)
- 장소 : St. Margaret Mary(25511 Eshelman Av. Lomita)
- 참가비 : \$40 (파티비 포함)
- 신청 마감 : 3월21일 *신청 :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
- 견진성사와 대부분은 위 3일의 일정에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남가주 소식

◆ 작은 예수회 장애인 후원 '1일 점심·차집' 행사

- 일시 : 3월6일(토) 오전 11시30분~오후 2시
- 장소 : 작은 예수회 LA 장애시설(올림픽+후버, 1137 Arapahoe St. LA, 90006)
- 메뉴 : 갈비백반 + 국(1인분 후원금 \$10)
- 문의 : ☎(213)387-3301

◆ 서울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가톨릭신자들을 위한 건강강좌'

- 일시 : 3월6일(토) 오후 3시
- 장소 : LA 바실성당 회관 3535W. 6th St. LA
- 주제 : 암과 성인병
- 강사진 : 홍영선(종양내과), 손호영(내분비내과), 노태호(순환기내과), 장도명(국제진료센터) 박사 등 同대학교수들

◆ 2011년 세계가톨릭청소년대회 : 스페인 마드리드

- 베네딕도 16세 교황님께서 가톨릭 신앙을 함께 기뻐하고자 전세계 다문화 다민족 젊은이들을 부르십니다.
- 일정 : 2011년 8월12~23일 스페인 마드리드
- 대상 : 행사달에 16세 이상 되는 청소년과 청년들
- 인솔자 : FIAT재단 김알렉스 신부/이유진 신부
- 참가마감 : 올 2월말까지 ☎(310)985-1684 프란시스 박

이번 주 단체 모임

2월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원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김광자 엘리사벳 328-0847 3/12(금) 오후 7시 성당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3/13(토) 오후 7시 성당
	3	신덕례 데레사 494-1390	신덕례 데레사 494-1390 3/20(토) 오후 7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박정애 소화 데레사 218-7340	1	김순희 모니카 328-1817	박인식 토마스 328-1817 3/14(주일) 오후 5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박스테파노 542-2952 3/18(목) 오후 7시
	3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박진숙 로사 543-9051 3/20(토) 오전 11시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최옥희 데레사 378-4183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3/20(토) 오후 7시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이경수 헬레나 972-9193 3/10(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3/12(금) 오후 7시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권병원 리디아 938-3255	1/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권진열 피데스 938-3255 3/13(토) 오후 7시 성당
	3	대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종열 토마스아퀴나스 784-0460 3/13(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박종선 리비나 748-7323 3/12(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국세찬 세바스찬 541-7644 3/12(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박옥진 세실리아 377-0436 3/12(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김인숙 안젤라 265-4701 3/9(화) 오전 10시30분

2010년 사순 메시지

사랑과 나눔은 진정한 회개의 열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1,15)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 시기 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의 중심인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새로이 마음에 새깁니다. 이 거룩한 사순시기를 우리는 머리에 재를 얹으며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운명,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묵상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 죽음을 넘어선 부활이 있음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사순 시기는 감사와 은총의 기쁨이 넘치는 더없이 은혜로운 때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사순 시기에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수난을 자주 묵상하고 회개와 보속,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도록 권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4,17)고 하시며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이 사순 시기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회개입니다. 사순 시기는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정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거룩하고 신비로운 영적인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회개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삶은 개인적인 절제와 희생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실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의 구체적인 표현이 나눔과 자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시기에 특별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요한 3,16 참조)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물질만능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

은 것을 소유하고 안락한 삶을 사느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미움과 갈등으로 많은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나만 혹은 우리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심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은 우리의 선한 마음을 병들게 하고 인간관계를 분열시키며 공동체를 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가 함께 공존하며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진 것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과 먼저 나누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표지가 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사실임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구는 2월 16일부터 주님 수난 성지주일인 3월 28일까지를 지난해 선종하신 고(故) 김수환 추기경님의 1주기 공식추모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김 추기경님께서 남겨주신 사랑과 나눔의 정신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퍼져나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김 추기경님의 선종 1주기를 지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남기신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거룩한 사순 시기에 우리 신앙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두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감사와 사랑, 나눔과 용서가 흘러넘치는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뜻깊고 의미 있는 부활, 내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은혜로운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사순 시기를 충실히 보내야 하겠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전석 추기경